

제목 **Theme.** 깨어 있으라 **Be on the alert**

본문. **Scriptures** 마태복음 **Matthew 25:1-13** 절

1. 그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Then the kingdom of heaven will be comparable to ten virgins, who took their lamps and went out to meet the bridegroom.**"
2. 그 중의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Five of them were foolish, and five were prudent.**"
3.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For when the foolish took their lamps, they took no oil with them,**"
4.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but the prudent took oil in flasks along with their lamps.**"
5.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Now while the bridegroom was delaying, they all got drowsy and began to sleep.**"
6.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But at midnight there was a shout, 'Behold, the bridegroom! Come out to meet him.'**"
7.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Then all those virgins rose and trimmed their lamps.**"
8.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The foolish said to the prudent, 'Give us some of your oil, for our lamps are going out.'**"
9.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But the prudent answered, 'No, there will not be enough for us and you too; go instead to the dealers and buy some for yourselves.'**"
10. 그들이 사려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And while they were going away to make the purchase, the bridegroom came, and those who were ready went in with him to the wedding feast; and the door was shut.**"
11.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Later the other virgins also came, saying, 'Lord, lord, open up for us.'**"
12.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But he answered, 'Truly I say to you, I do not know you.'**"
13.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Be on the alert then, for you do not know the day nor the hour.**"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의 내용은 종말론적인 의미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과를 결정하는 심판과 같은 의미로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엄격한 과정을 결정하는 순간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표는 천국 즉 영원한 생명을 약속 받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는가 믿지 않는가를 통하여 결정되어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결정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항상 지키며 준비해야 한다는 것으로 영혼이 깨어 있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므로 그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1** 절에 “그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그 때”는 마태복음 **24** 장 **36** 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라는 내용에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보면 “천국에 들어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마치 등을 들고”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라는 말에서 “신랑”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를 사용한 것은 여러 명의 신랑이 아니라 단 한 분의 신랑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 처녀”는 온전한 숫자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구원을 기다리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 절에서 “그 중의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라고 하신 내용에서 성도들 중에서도 구원에 관하여 슬기로운 자들이 있고 미련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원을 기다리는 성도들 중에서도 구원 받는 자들이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3** 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기름”입니다. 이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마지막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기름이 곧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5** 절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줄며 잘새”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많은 인내와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올라 가실 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자신들이 살아 있을 때에 오시는 것으로 믿고 그 신앙을 기본으로 마지막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 장 **10-11** 절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 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은 올려지신 모습대로 다시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신앙으로 마지막까지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슬기로운 신부들”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현대 교회들 중에서도 지금 오시면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교회가 있고, 준비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어리석은 처녀들과 같은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6** 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등불이 꺼져가니”라는 의미에서 등불이 약하게

켜져 있는 상태이든지 아니면 켜졌다가 기름이 다되어 꺼진 상태로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한 편에는 현재도 켜져 있지만 앞으로도 킬 수 있는 준비된 기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신부들은 준비된 신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하였지만 **9** 절에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31** 절에 “(모인 자들이)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라고 하였습니다. 기름으로 말하고 있는 성령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누어 줄 수 있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신랑을 맞이하는 순간에는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니”고백한 것처럼 일생 동안 아무리 완벽하게 신앙을 지키며 살았어도 마지막 성령이 부족하여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천국의 조건을 양보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성을 소홀히 하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천국은 양보하는 조건이 아니라 반드시 쟁취하는 조건입니다. 마태복음 **11:12** 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10** 절에 어리석은 처녀들이 “사려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한 번 실수하면 다음에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인생은 한 번 죽으면 다시 태어나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없듯이 천국의 기회는 한 번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11** 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기름을 구해서 돌아 온 것이 아니라 이미 기름은 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는 기회가 없고 오직 심판만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48** 절에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라고 하였고, 히브리서 **9:27** 절에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은 인생이 다시는 기회가 없는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기름을 구하지 못하고 돌아와 문을 열어 달라고 하니 **12** 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성령의 거듭남과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13** 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깨어 있으라”고 하신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깨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10** 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라고 하셨고 로마서 **8:16** 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깨어 있으라”고 하신 상태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항상 준비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4** 절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1 성령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34 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2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27 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3 성령은 소멸할 수도 있고 충만할 수도 있는데 성도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19 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 에베소서 4:30 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 갈라디아서 3:3 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둘째,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7 절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1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5:8 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2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모든 성도의 생활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23 절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3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를 상속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 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 마태복음 25:34 절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 받으라”

셋째, 성도들은 반드시 깨어 있는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13 절 “깨어 있으라”)

1 깨어 있는 생활은 믿음이 충만한 생활입니다. 로마서 15:13 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2 깨어 있는 생활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5 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앤디옥 사람 니콜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앉수하니라”

3 깨어 있는 생활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8 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반드시 재림 하십니다. 그 재림을 통하여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세계 즉 천국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깨어서 신랑을 기다린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